

국통조 77-12-1350

열람용
(특별 열람실)

北韓調査研究—經濟

分斷後 北韓經濟体制形成 및
變遷過程 研究

보관용
(관리과) f/t

國土統一院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研究調查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北韓調查研究—經濟

分斷後 北韓 經濟體制 形成 및 變遷過程 研究

研究執筆責任 林 熙 喆

(略歷) 延世大學校 經濟科(1957)
『화란』 ISS經濟開發過程(1961)
貿易協會 香港코리아센타 勤務(1970)
海外經濟研究所 研究室長(1973)
檀國大學校 教授(1976~現在)

刊行責任 南 炫 旭 (調查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目 次

1. 序 論	3
2. 社会主義經濟理論의 概要	6
3. 北韓經濟体制의 定義	8
4. 北韓經濟体制의 内容分析	9
5. 北韓經濟体制의 變動内容과 要因分析	19
6. 北韓經濟体制變動의 影響分析	36
7. 共產圈諸國의 經濟体制變動	40
8. 東西經濟의 収斂可能性과 南北韓經濟의 接近可能性	50
別添 : I. 틴바겐의 収斂假說에 關하여	52
II. 二重選好体系下 市場利用의 諸段階說의 吟味	56

1. 序 論

가. 經濟体制의 概念

韓半島의 平和的 統一이라는 民族的欲求를 앞에 놓고, 北韓經濟体制의 變動要因을 分析한다는 것은 北韓의 經濟가 그 体制面에서 어느 程度까지 그리고 어떤 速度로 南韓의 經濟体制에 接近해 올수 있을 것인가 하는 問題의 解를 求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 된다.

解放后 世界는 東西兩陣營으로 分極化되어 冷戰狀態가 繼續되어 왔고 各々 兩陣營의 어느 한쪽에 屬해 온 南北韓은 極端的으로 相異한 体制下에서 對峙하여 오고 있다.

이와같은 狀況下에서 体制의 接近可能性을 본다는 것은 바로 收斂의 假說 (Convergence Hypothesis) 을 想起하게 한다. 그런데 Jan Tinbergen에 依하여 提示된 이 假說¹⁾은 「先進」市場經濟와 東歐의 「先進」中央集權的計劃經濟와의 사이에 收斂可能性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韓國經濟는 未久에 先進圈에 접어들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相當한 程度까지 西歐의 福祉厚生水準에 接近하게 되겠지만, 北韓經濟는 東歐의 經濟水準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볼때 南北韓經濟에 收斂理論을 그대로 適用할수는 없다.

註 1) J. Tinbergen, Do Communist and Free Economies Show a Converging Pattern?, 1961 그 內容에 對하여는 別添I參照

問題는 北韓經濟가 果然 그 体制 가운데에서도 東歐程度의 先進 國水準에 到達할수 있을 것이냐, 또는 到達하기 위한 條件은 무엇 이냐, 또한 設或 그와같은 水準에 到達한다 할때 東歐와는 달리 逆收斂要因으로 作用할 特性은 갖지 않느냐 하는 點을 보아야 할 것이다.

經濟体制의 問題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經濟体制」의 概念規定 부터 하고 들어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經濟体制는 經濟的 立場에서 본 体制라고 定義한다. 体制 卽 System이란 相互有機적으로 作用하는 諸要因의 複合體이며²⁾ 그 有機的關係란 不可分的인 것이며 特히 北韓 같은데서는 政治体制, 經濟体制, 社會·文化体制가 서로 可分的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立場의 差異만이 두드러진다. 經濟的立場이란 國民의 福祉增進을 위한 觀點이다. 그것은 自然히 合理性과 效率을 重視한다. 그리고 그것은 福祉增進이라는 目的을 위한 手段·方法에 關해서 取하는 立場인 것이다. 이렇게 볼때 經濟体制란 經濟優先的 西方式 思考方式에서 나온 것이며 政治優先的 共產國家에 關한 限, 그것은 政治体制 속에서 의 經濟運營方式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實踐問題에 關한 方法에는 保守와 急進, 溫健과 過激이 있고 또 그 사이에 折仲的, 混合的인 것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經濟에 關한 限 그 差異는 經濟生活에 있어서의 個人의 自由權의 制限程

註2) J.Fisk, The Marketing System

度에 관한 것이며, 그것을 뒤집어 말하면 政府의 干与度에 관한 것이다.

二次大戰后 世界는 混合經濟圈과 共產圈으로 兩分되었다. 前者는 一般的으로 自由圈이라 불리우는 것인데 이때 自由란 自由放任이 아니고 制限的自由인 것이다. 后者는 西方言論에 있어서 마저 흔히 社會主義圈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實은 그 名稱을 共產圈에서 그들 自身の 矛盾을 陰蔽하기 위하여 또는 戰略적으로 그렇게 불리워지기를 願하는 것으로 보인다. 社會主義란 政府所有의 平和的, 漸進的 擴大를 主張하는 것이며 Samuelson의 表現을 빌리면 投彈에 依하지 아니하고 投票에 依한 革命 (Revolution by ballot rather than by bullet⁴⁾) 이라고 하는 平和的 進化를 指向하는 것이다. 英國勞動黨이나 스웨덴의 社會主義政府와 같은 경우가 이에 該當하며, 이에 反해서 共產圈이란 "Revolution by Bullet" 即 暴力에 依한 革命을 부르짓는 主義이다.

純全히 經濟的 立場에서 볼때 混合經濟는 生産으로부터 消費에 이르는 市場에 對한 政府의 干与幅을 擴大하되 判斷基準으로서의 市場매카니즘을 保存하는 反面에 共產圈經濟에서는 市場의 機能이 抹殺된 것이다. 그리하여 性格上 유화적인 UN의 用語上으로는 前者를 市場經濟 (Market Economy) 后者를 中央集權的計劃經濟 (Centrally Planned Economy) 라 하는 것이다.

註 4) Paul A. Samuelson, Economics, International Student Edition, Tenth Edition, p.872

2. 社会主義經濟理論의 概要

1. 社会主義經濟理論의 概要를 보기 위하여는 우선 Samuelson 이 社会主義와 Galbraith의 弁說에 늘어나는 所謂 新左派나 急進派에 對한 批判을 하면서, Marx의 「資本主義의 運動法則」을 要約 說明한 것으로 부터 시작 하기로 한다. 註)

그것은 「資本主義下에서의 利潤率低下의 法則, 勞動階層의 貧窮化 法則, 不平等의 深化, 그리고 被壓迫無產層쪽에서의 階級意識의 抬頭, 生産規模의 繼統的擴大의 必要性和 그 結果 일어나는 競爭의 終息과 独占資本主義의 形成, 大衆의 過少消費와 購買力의 欠如로 因한 景氣變動의 激化, 마침내 最後의 大恐慌으로 資本主義体制의 吊鍾은 울린다. 破滅을 冒免하려는 必死의 努力으로서의 植民地擄取와 王權의 伸長과 海外投資라고 하는 形態의 帝國主義的冒險, 그러나 終局에는 資本主義가 익은 果實과 같이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瞬間的이며 必然的으로 暴力的인 革命에 依해서 勞動者의 손에 건우어진다」는 式이다.

Samuelson은 이어서 「이것이 마르크스主義의 全體인데, 左翼을 한다는 사람치고 資本論 第1卷의 앞에서 두서너줄 以上 읽은 사람은 없으며, 그들은 다만 資本主義는 沒落하고 社会主義가 그것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만 하면 된다는 式이라」고 비양하였다.

註) Economics, 10th Edition p.853

2. 그런데 資本論이 나온지 30년이 지난 20世紀에 들어서서 資本論의 核心이라고 할수 있는 實質賃金の 絶對的 低下는 西方世界에서 이러나지 않고 오히려 上昇하였다. 特히 1936年 Kenyes의 一般理論이 나온后 失業者는 吸收되고, 景氣變動激化論은 成立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마르크스主義는 그 根拠로 부터 흔들리게 되었다. 問題는 이러한 窮한 処地에서 그들이 이에 어떻게 対処하느냐 하는데 있어서 크게 두가지 類型으로 나뉘어졌다.

그 하나는 「이들 事實을 無視하고 그것들을 否認하거나 적어도 그것들을 거짓으로 陰弊하라」는 類型이고 또 하나는 「勞動組合에 希望을 걸고 漸次 議會議席을 늘려 勞動者를 위한 立法이 可能토록 한다」는 類型이다.

여기서의 對象은 前者이다. 거기에는 그 類型의 特徵上 經濟理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外部에 對해서는 유토피아의 建設을 내세우고 完全히 閉鎖된 内部에 對하여는 中央集權統制가 있을 뿐이었다.

3. 그것은 1950年代初에 이르는 스탈린時代의 소련에 依하여 代表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消費에 있어서는 嚴格한 配給制, 生産에 있어서는 職業에 따른 差等勞賃과 作業割当制가 있을 뿐이었다. 貨弊는 通用되고 超過作業에 對한 超過給与는 있었지만 그 超過所得을 가지고 살수 있는 것은 配給外의 무척 비싸게 매겨진 物件뿐이었다. 1920年代末 工業化와 農業集團化를 위하여 樹立되기 시작한

5 個年計劃은 그后 急速한 資本形成과 그것을 가지고 하는 戰爭準備을 위한 計劃이 되고 말았다.

그와같은 計劃은 下向的 一方的인 強要이며 그런 意味에서 그것은 中央集權的計劃經濟 (Centrally Planned Economy)라 불리운다. 그리고 그것은 總量的 均衡만을 追求하는 總量計劃이 全部이고, 市場에 카니즘을 無視하고는 잡히기 어려운 部分均衡 乃至 個別均衡을 追求하는 微視計劃은 無視했거나 또는 손도 대지 못하였다.

3. 北韓經濟体制의 定義

北韓의 体制가 中共 알바니아 등과 더불어 가장 教條主義的 (스타린時代的) 이라는 것은 알려져 있는 바이다. 그만큼 그것은 他의 先進的 東歐共產圈이 이미 試行하고 그 錯誤를 發見하여 修正하고 있는바를 無視하거나 外面하는 体制이다.

그리하여 그特徵을 或은 그 后進性에 着目하여 「가장 硬直的·過度한 中央集權的命令 体制」^{註 1)} 이라고도 하고 或은 恆久的이고 全体的인 經濟問題에 對하여 一般的經濟原理보다 軍事의原理를 優先的으로 導入 適用한다는 點에서 「軍事經濟」^{註 2)} 라고도 한다.

兩者는 各々 다른것 같으면서도 結局에 가서는 같은것 即·가장 스탈린時代的인 것이라고 할수 있다. 帝政로서아를 共產政權이 代置할

註 1) 国土統一院刊, 배 손근, 南北韓經濟体制의 接近可能性檢討, p.60

2) 徐南源, 東北亞研究所主催, 東北亞平和를 위한 第 1 回 學術 심포지움.

當時 歐羅巴의 後進國이었던 러시아에 바탕을 두고 急速한 資本形成을 強權的 勞動力動員과 強壓的 消費抑制를 通해서 實現하려 한 點에서 스탈린時代의 體制는 前者와 通하고, 그렇게 하여 蓄積되고 動員된 全資源을 軍事目的 即 兵器生産과 戰爭을 위하여 必要한 部面에 集注한다는 點에서 後者와 通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北韓의 經濟體制는 다름 아닌 「스탈린時代의 經濟體制를 그대로 踏習하는 것이다」라고 하는것이 尙當하고 또한 理解되기 쉬운 定義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對外的으로는 徹底한 閉鎖요, 對內的으로는 生産에 있어서 人力의 強制動員配置와 作業의 割當, 消費에 있어서는 徹底한 配給制의 施行을 하는 社會인 것이다.

4. 北韓經濟體制의 內容分析

가. 所有形態

그 體制가 스탈린時代的인 것이기 때문에 北韓에서는 一切의 資源이 國有化되어 있다. 外形上으로는 그것이 國有化와 協同組合所有로 区分되는 것 같이 나타나지만^{註)} 實際上으로는 그것이 全面 國有를 意味한다는 것은 말할것도 없다. 왜냐하면 協同組合은 勿論 심지어 무슨 会社라 하는것 까지도, 마치 傀儡政黨과 마찬가지로

註) 백손근, 前揭書, p.61

國家(結局 黨)의 完全한 支配下에 있기 때문이다.

結局 土地와 地下資源, 山林과 河川은 勿論, 商工業과 各種 運送手段 其他의 서비스部門等 生産·流通에 關聯된 모든 資源이 國有·國營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生活手段 消費生活까지도 國家에 依해서 所有되고 그에 따라 運營된다해도 過言이 아니다.

生活手段의 國有化란 그 生活根拠가 되는 家屋의 買売와 自由로운 移轉이 있을수 없다는 點과 關聯해 볼때 그 所有權이 認定되지 않고 家屋所有權의 行使 即 入住를 國家에 依해서 指定된다는 點에서 國有·國營이라고 보아 마땅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配給制度는 消費의 國家管理인 것이다.

結局, 「農民에게 農地를, 勞動者에 일터를」하는 式의 幻覺을 이르게 하는 幻想的口號와는 달리 「全體 農民은 農業勞動者로, 勞動者는 作業割當받은 者로」轉落하여 職業選擇도 選擇的消費도 할수 없는 地位로 轉落한 것이다.

北傀自身の 資料에 依하면 1949年 私的所有는 農業에서 96.8%, 工業에서 9.3%, 商業에서 43.5%를 占하던 것이 1958년에는 工業과 商業에서 零을 나타내고 農業에서 겨우 1.4%를 나타낸다(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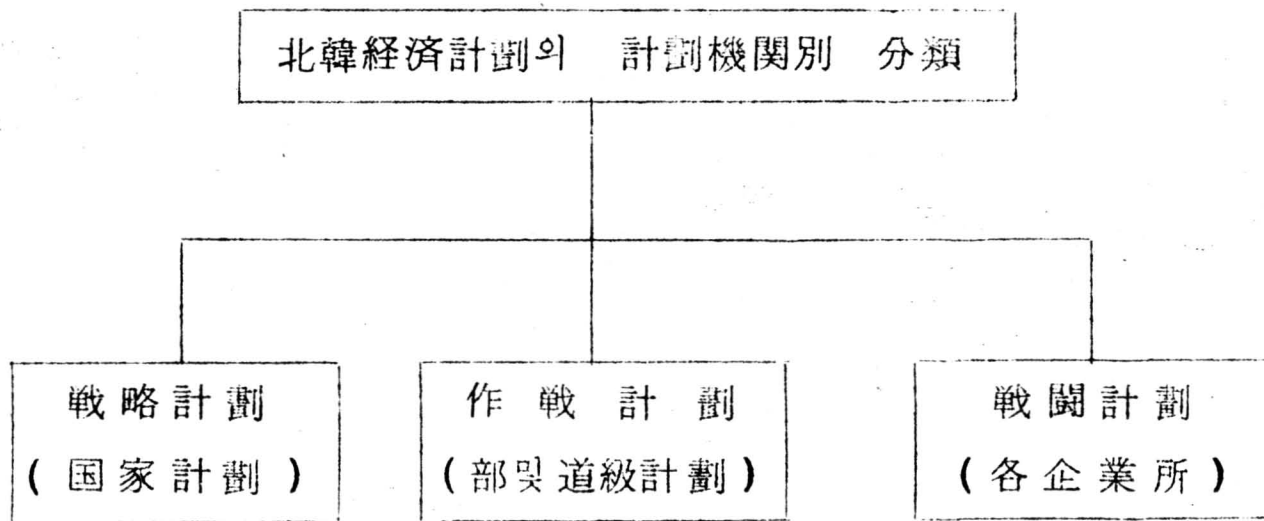
이 農業에서의 1.4%의 私有라는 것도 戶當 菜田 30~50坪의 耕作權이라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여 그 所有權을 認定한 것이 아니고 運用權만이 委任되어 있는 셈이다.

註) 統一朝鮮年鑑, 統一朝鮮新報社刊, (1965~66); 國土統一院, 北韓經濟統計集, 1977

나. 經濟의 計劃

北韓에서의 計劃은 極히 中央集權的인 것으로 1960年代以來 東歐에서 보이는 分權化는 全히 일어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計劃은 어디까지나 下向的 一方的이며 命令的計劃이 오직 軍의 作戰體系와 같이 樹立되고 下達된 戰略에 忠實한 作戰, 作戰命令에 따르는 戰鬪計劃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上下級計劃機關의 關係는 다음의 圖示에 잘 나타난다.

<圖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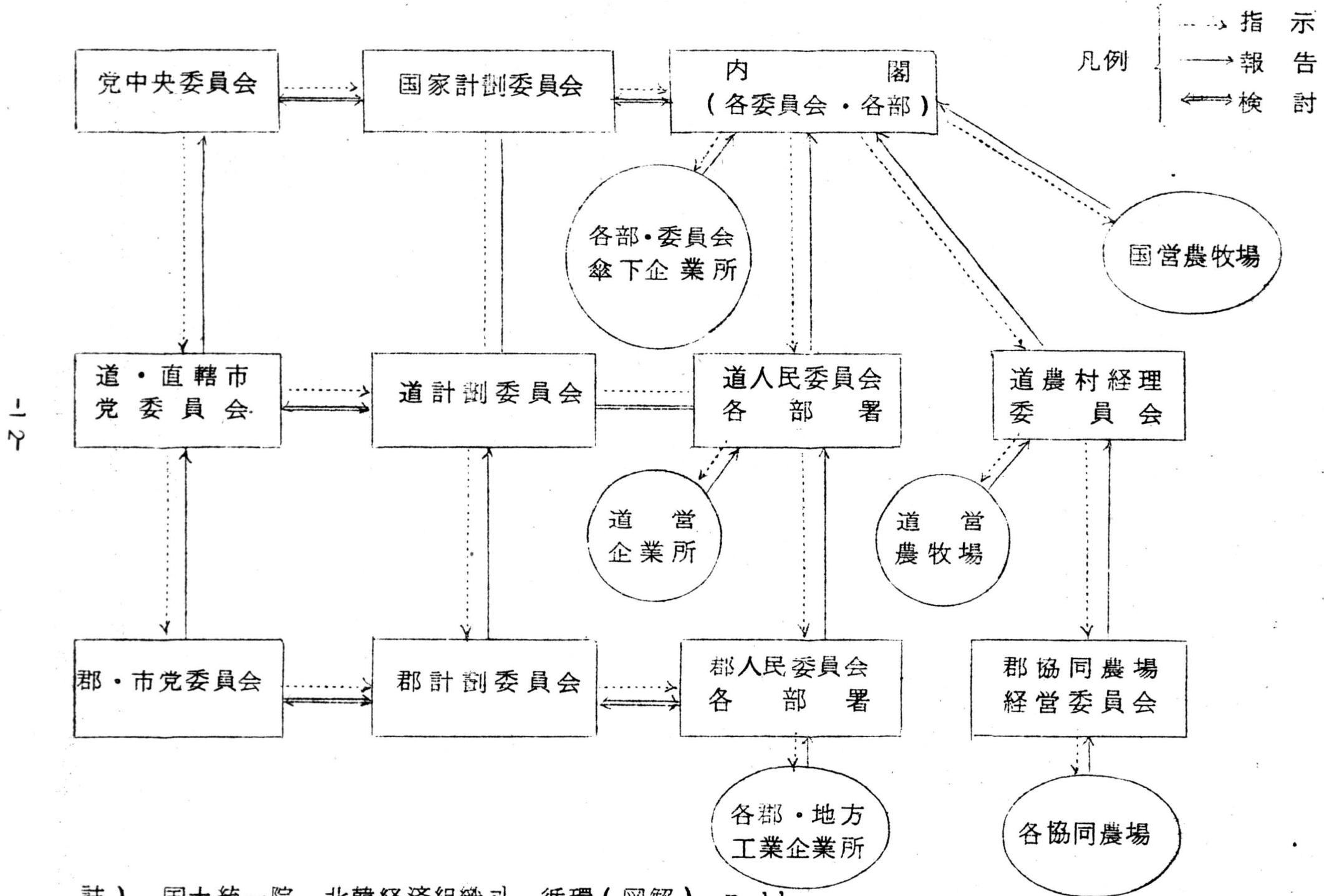


註) 国土統一院, 北韓經濟組織과 循環 (圖解), p.7.

그런데 그들의 計劃體系에도 下部機關의 計劃參與機會가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음의 圖示가 나타내는 바와같이 거기에는 指針아닌 指示가 下達되고, 橫的檢討는 있으며 縱的調整·檢討는 없으며, 따라서 下部機關의 報告는 自體의 意思의 上達아닌 一方的

< 圖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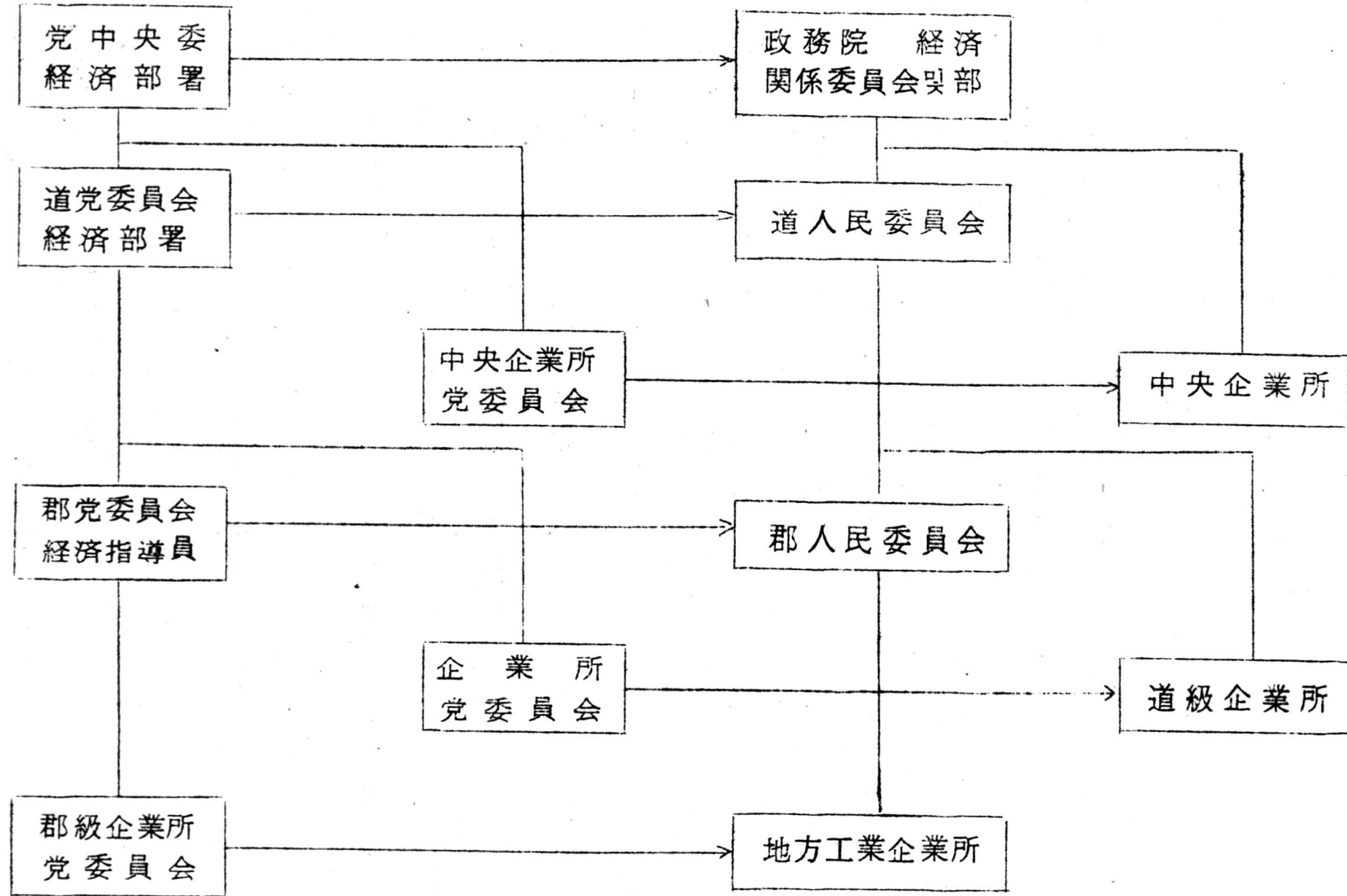
北韓의 計劃作成体系圖



註) 国土統一院, 北韓經濟組織斗 循環(圖解), p.11.

<圖3>

外部管理組織



註) 統一院, 前掲書, p.11

指示에 副應하는 一方的報告에 不過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中央計劃當局을 包含한 各級計劃當局이 黨으로부터의 指示를 받는다.

거기에는 消費者選好가 計劃에 反映될 餘地는 전혀 없는 것이다.

다. 生産管理体系

生産企業 協同組合에 對한 管理統制組織은 그 外部管理組織에 있어서나 内部管理組織에 있어서나 黨·政의 二重的管理統制下에 있음이 如實히 들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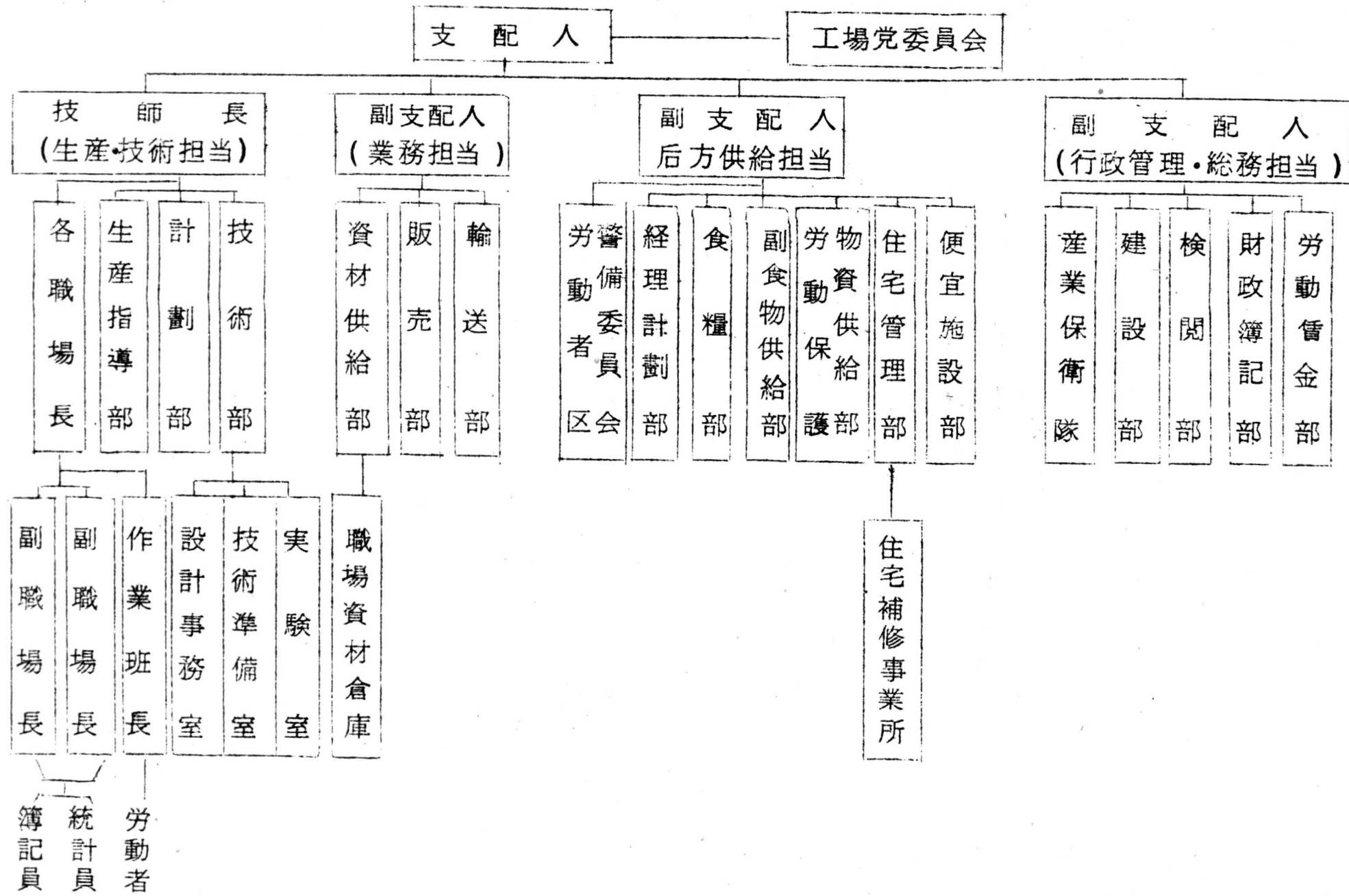
即 外部管理組織에 있어서 中央企業所는 政務院 關係委員會 및 部의 管理下에 있으면서 同時에 黨中委隸下의 中央企業所黨委員會의 統制를 받으며, 道級企業所는 道人民委員會와 道黨 企業所黨委員會의 二重의 管理·統制下에 있고, 地方工業企業所는 郡人民委員會와 郡黨 郡級企業所黨委員會의 兩面管理·統制下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한편 内部管理組織에 있어서 工場企業所에는 黨統制機構로 보이는 生産技術部門의 生産指導部行政管理·總務部內的 檢閱부와 産業保衛隊 등이 混在되어 있고, 協同農場에서는 副委員長揮下의 業務指導員과 生産部門의 各種指導員이 있다.

内部管理組織面의 또하나의 特色은 計劃部 또는 計劃指導員이 生産·技術担当의 技師長揮下에 있다는 事實이다. 이것은 有機的組織體로서의 企業內 各部門間的 相互依存性을 度外視하고 計劃이 갖어야 할 綜合, 調整, 經濟性追究의 機能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單純히 指示, 割當받은 生産品과 量의 生産을 達成하기 위한 計劃에 不過한 것을 表現하는 것이다.

< 図 4 >

工業企業所 内部管理組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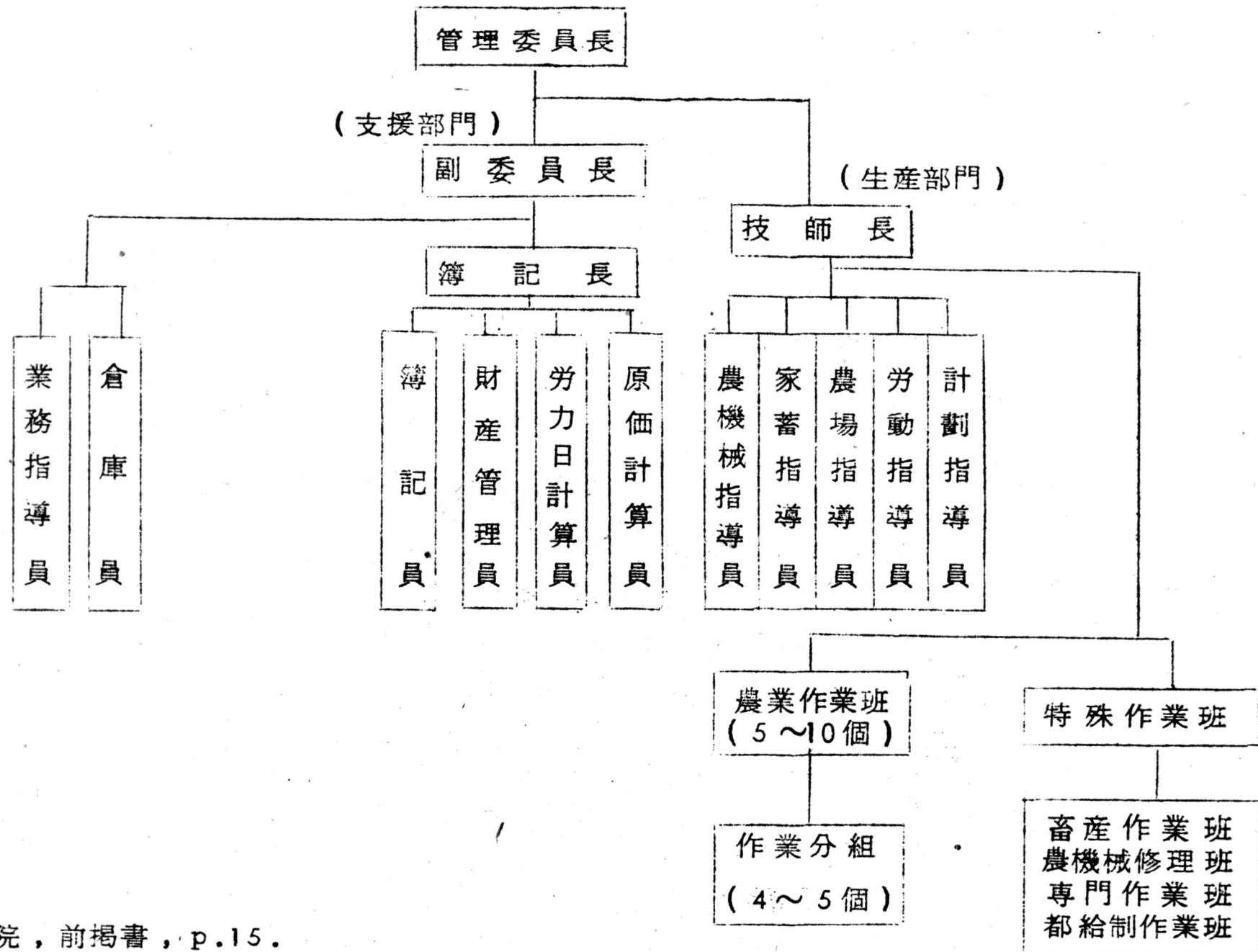


-15-

註) 統一院，前掲書，p.14.

<圖 5 >

協同組合 內部管理組織



註) 統一院，前掲書，p.15.

라. 流通·消費体系

北韓의 商業을 보면 앞서 所有權項에서 본바와 같이 商業企業의 私的所有는 1958년에 이미 全無하게 되었다. 따라서 生産財는 勿論 消費財의 流通도 全적으로 国营(協同組合 19.2% 包含)이며, 다만 極히 微々하고 變則的인 農民市場이라는 것이 全体小売流通額의 0.6%를 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註1)

各種商業店舖數를 보면 1960年現在의 店舖總數는 1万633個인데 그 가운데 国营商店이 7,039個로 約66.2%를 占하고 協同組合商店이 나머지의 3,594個로 33.8%를 占한다.

<表1> 商店數構成(1960) 註2)

国 营	7,039 個	(66.2) %
協 同 組 合	3,594	(33.8)
合 計	10,633	(100.0)

以上の 流通機構의 性格(国营 乃至 協同組合)에서도 北韓의 消費生活이 完全히 國家에 依하여 統制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위에 主要消費財의 配給制는 그 消費의 量的制限을 加하는 것이고, 非配給品目에 對하여는 超高率의 去來稅를 附加한 터무니 없게

註1) 統一院, 北韓經濟統計集 1977, p.840; 1963年 現在計數임.

2) 統一院, 北韓經濟統計集 1977, p.844

비싼 價格으로써 그 消費를 不可能에 가깝게 한다.

마. 國際關係

北韓의 貿易은 完全히 國營貿易이며 計劃貿易이다.

그에 따라 北韓의 貿易機構는

(1) 對外貿易全般을 統制하는 貿易省 (10局, 1室, 4部, 1個事業所)

밑에

(2) 偽裝機關으로 國際貿易促進委員會를 두어, 民間團體의 看板을

메고 外交關係가 없는 國家와의 貿易關係開設, 貿易會談의 形式上

當事者가 되고 展示會參加와 國營인 國內貿易商社와 海外業體間

의 連繫業務를 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個別去來의 當事者가 되는 事實上 國營인 貿易商社가 20餘個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大略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① 朝鮮設備輸出商社
- ② 朝鮮設備輸入商社
- ③ 朝鮮技術商社
- ④ 朝鮮機械輸出商社
- ⑤ 朝鮮機械輸入商社
- ⑥ 朝鮮鉍物輸出商社
- ⑦ 朝鮮金屬製品輸出入商社
- ⑧ 朝鮮化學製品輸出入商社
- ⑨ 朝鮮纖維製品輸出入商社

- ⑩ 朝鮮食料品輸出入商社
- ⑪ 朝鮮日用品輸出入商社
- ⑫ 朝鮮糧穀輸出入商社
- ⑬ 朝鮮平壤協同貿易商社
- ⑭ 朝鮮中外協同貿易商社
- ⑮ 朝鮮大型貿易商社
- ⑯ 朝鮮協同貿易商社
- ⑰ 朝鮮出版物輸出入商社
- ⑱ 朝鮮映畫普及社

北韓은 對外決裁銀行으로 1959年 設立한 貿易銀行이 있는데, 同銀行은 英國(6行) 仏國(3行) 스위스(1行) 西獨(3行) 香港(4行) 日本(2行) 등과 코르레스契約을 맺고 있다. 註)

5. 北韓經濟体制의 變動內容과 要因分析

가. 時代区分

北韓의 經濟体制은 徹底的 下向的 計劃과 生産要素의 強制動員 그리고 國民生活의 統制라는 基本的 테두리는 解放以來 變함이 없다. 아니 그와같은 体制가 더욱더 強化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와같이 하여 蓄積된 資本이 現在와 未來의 國民生活向上을 위해서 投資된다면야 急速한 工業化를 위한 하나의 開發戰略이라고도 할수

註) 統一院, 前揭統計集, pp.664 ~ 666

있겠고 크게 나무라지 않을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이 죽었다 깨어나도 후루시초프가 될수 없듯이, 金日成은 始終一貫 그것을 戰爭準備에 消盡한다.

그러면 스탈린時代的인 北韓의 經濟体制가 어떻게 強化되고 變化하여 왔으며, 可視的 將來에 果然 變化할 조짐이 있는가를 살핌에 있어서, 우선 共通된 特質에 基礎하여 몇개의 時代로 区分하여 必要가 있다.

時代区分을 위한 特質은 觀點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찾아질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歸結되는바는 大體로 同一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資源動員 特히 人力動員이라는 한가지 觀點에서 時代区分을 하여 보았다.

그 結果 第1期는 既存資源의 總動員·總統制態勢를 完結한 1950年代末까지, 第2期는 既存資源의 動員 限界에 부딪쳐서 資源의 發掘·活用을 위한 새로운 統制手法을 使用한 時期로서의 1960年代, 그리고 第3期는 不可避的 國際潮流에 따라 南北韓交流의 試圖에 依해서 發見된 國民生活面의 顯格한 格差에 놀라, 國民生活의 改善企圖와 同時에 縮少할줄 모르는 戰爭準備을 위한 資源源泉을 外部世界에서 찾으려 든 結果 過重한 外債負擔의 時代인 1970年代로 나누게 된다.

<表 2 >

人力動員，經濟成長，勞動生產性 推移

	人民經濟從業員數(A) (1959=100)	1人當GNP(B) (1959=100)	勞動生產性 ($\frac{A_t}{B_t} / \frac{A_0}{B_0}$)
46	18.8	16.9	—
49	40.9	34.1	0.94
53	41.6	24.2	0.70 (1956)(1.50)
59	100.0	100.0	1.17 (1962)(1.00)
65	150.5	135.3	0.91
69	169.6	(1970)138.0	0.94
73	194.6	167.4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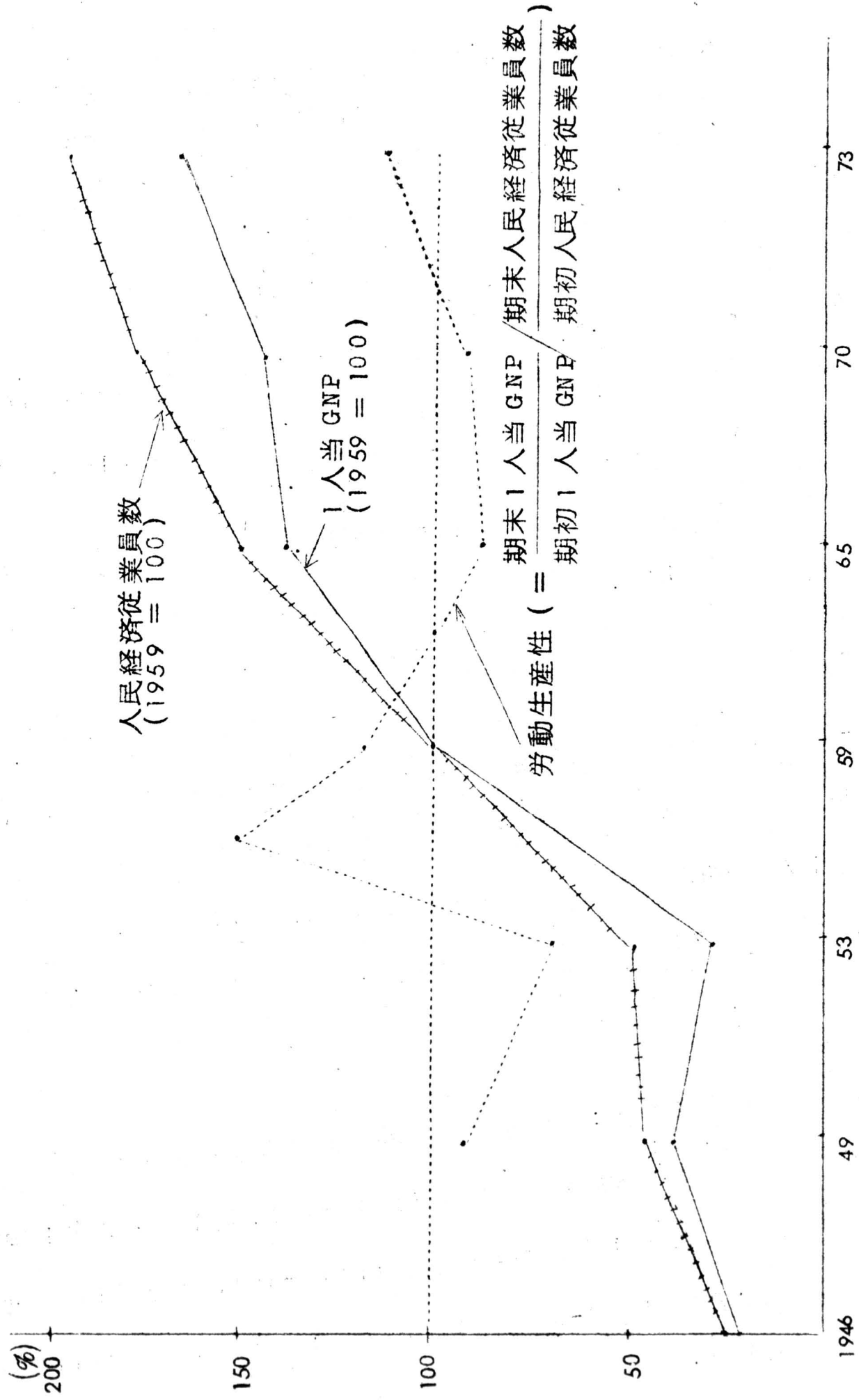
註) 表 4 에서 作成

65-70年間人民經濟從業員數 增加率은 60-65와 같다고 推定
 70以後人民經濟從業員數 增加率은 人口增加率과 같은 것으로 推定
 73年1人當GNP는 世銀計數, 70年 1人當 GNP는 73年 成長率
 (6.2%)가 70年代初의 資源價格急上昇을 反映하는 것으로 보아
 逆算한 것임.

나. 1945 - 1959年 : 全資源國有化와 動員組織完備의 時期

이 期間은 解放后의 整備期(1945-46), 第1次·2次1個年
 計劃期(1947, 1948), 第1次2個年計劃期(1949-50), 南侵期(1950-53),
 戰后復旧3個年計劃期(1953-56) 그리고 第1次5個年計劃期(1956-
 1960)를 包括한다.

〈図6〉 人力動員，經濟成長，勞動生產性の推移



그間に 生産手段의 国有化가 100% 完結되었는데, 그 過程을 보면

1946.3. 土地改革

重要産業의 国有化—이것이 擴散되어 個人商業까지 国有化하기에 이르렀다.

1947.12. 地下資源, 山林, 水域 国有化

1958.10. 里單位農業協同化完成^{註)}

여기에서 注目하여야 할 點은 1946年의 土地改革이 農土를 農民에게 無償分配한다는 美名下에 ①地主를 土地로 부터 追放하여 單純勞動者로서 與地勞役場에 投入하였고 ②旧小作人은 地主에게 내던 小作料에 該當하는 重租稅(現物25%)를 國家에 내게 되었으며, 따라서 私有土地耕作者로 부터 國有地耕作者와 같은 外形上의 變化가 있었을 뿐 實質的 財産上의 變化는 없이, 嚴格한 統制를 받게 되었으며, ③自作農은 類例없이 높은 農地稅(現物稅25%)를 徵收當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前小作農이건 自作農이건, 周知하는 바와같은 「立稻의 이삭에서 벼알을 세는」式의 課稅標準調査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不完全하나마 個別營農의 營爲도 所謂 社會化 協同化의 名目下에 協同農場에의 編入이 進行됨에 따라, 段階的으로 自營權이 박탈되어 1958年에 이르러서는 全農民이 協同農場의 農業勞動者化

註) 統一院, 前揭統計集, p.38.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農土의 国有化와 農民勞動力의 組織的動員基盤이 確立되어 간 一方 非農業分野에서도, 1946年 重要産業国有化法の 施行으로 旧日人所有의 法人·企業과, 個人所有의 企業 鉸山 發電所 通信 銀行等의 沒収와 国有化로부터 시작하여, 漸次 拡散, 1人營業場까지

<表 3 > 国共有化比率推移^{註)} (单位: %)

	1949	1953	1956	1957	1958
工業	90.7	96.1	98.3	98.7	100
農業	3.2	32.0	80.9	95.6	98.6
商業	56.5	67.5	84.6	87.9	100

註) 統一院, 前掲統計集, p.39 에서 作成

共有란 協同組合所有를 가리키나, 이는 事實上 国有라 볼것임.
農業에 尙存하는 私有地는 戶当 30 ~ 50 坪의 菜田임.

国有化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앞서 1947년에는 山林, 水産, 鉸業 등의 諸資源의 国有化措置가 있었으며, 1958년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全産業·全資源이 国有化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와같이 하여 全資源·全産業의 国有化(所謂協同化도 마찬가지다)는 食糧·生必品の 配給制와 더불어 全国民을 党和 政府의 統制圈外에서는 生存할수 없게 하여, 人力의 移動과 就業을 完璧하게

統制·管理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住民의 住居·遊休·消費까지 統制하게 되었다.

北傀의 組織的 強制的 人力動員은 1950年代末에 이르러 그 바닥이 들어 난 것으로 보인다. 即 1946-49年間에는 2.2倍로 擴大되었던 人民經濟從業員數가 6.25期間中の 停滯期를 지나고 1953-56年間에는 1.4倍, 1956-59年間에는 1.7倍로 急速히 擴大되었으나, 1960年代 前半에 들어와서는 各々 年間 1.2倍씩에 不過한 增加를 나타낸다.

50年代 北傀의 所謂 人民經濟從業員數가 이렇게 急激한 擴大를 하는 동안 그들의 生産水準도 그에 못지 않은 程度로 急速한 增大를 보였다. 即 1946-49年間に 2倍로 伸長된 1人當 GNP는 6.25期間中 -30%의 後退를 보였으며, 1953-56年間에는 2.1倍, 1956-59年間에는 2倍의 伸長을 나타냈다. 그러든 것이 1960年代 初半에는 各3年間 20%乃至 10%의 成長밖에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年率로 換算할때 各々 6.0%와 2.9%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생각컨데 50年代末까지 그들은 在來의 動員可能한 人力(男子勞動力中心)을 다 動員하였으며, 그들에게 累增的 作業割當과 超過達成을 強要하는 한편 共產各國의 支援에 힘입은 機械·設備類의 補充으로 生産 亦是 急速한 增加를 갖어올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50年代末까지 可用男子勞動力을 모두 動員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그들의 所謂 「勞力富源」統計에서 推理可能하다. 即

1960年 勞力富源은 533万名^{註)}으로 나타난다. 이 數字는 16歲以上 60歲까지의 全人力에 16歲以下の 就業者와 60歲以上の 就業者를 합친 것이다. 이 가운데 女性을 切半으로 치면 男性은 約265万名인데 그 가운데 다시 約切半이 軍人 党僚, 官僚, 學生 및 勞動力喪失者로 構成될 것이므로 59年 그들의 人民經濟從業員數 138万名은 可用男性勞動力을 全部 包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하여 60年代에 접어들면서 勞動力에 枯渴現象이 나타났다는 事實이 人民經濟從業員數의 增加率의 大幅的遲速現象으로 說明될 수 있는 것이다.

<表4> 北韓의 人力과 1人當 GNP

	人 口 (千名)	農業人口比重 (%)	人民經濟從業員數 (千名)	1人當 GNP (\$)
1946	9,257	74.1	260	17.68
1949	9,622	69.3	565	35.56
1953	8,491	66.4	575	25.27
1956	9,359	56.6	808	104.38
1959	10,392	45.7	1,381	106.72
1960	10,717	44.4	1,458	117.46

註) 前揭統計集 p.183.

	人 口 (千名)	農業人口比重 (%)	人民經濟從業員数 (千名)	1人当 GNP (%)
1961	11,029	"	1,538	117.46
1962	11,341	"	推定(1,700)	129.90
1963	11,702	42.9	1,872	136.87
1964	11,978	"	2,017	146.19
1965	11,987	40.8	2,079	141.20
1966	12,340	"	"	"
1967	12,933	"	"	"
1968	13,305	"	"	"
1969	13,509	"	"	"
1970	14,354	"	"	"
1971	14,700	"	"	"
1972	15,100	"	"	320
1973	15,500	"	"	340
1974	15,800	"	"	390
1975	16,160	"	"	"

註) 総人口：前掲統計集 pp.154-155；農業人口比重：同 p.177；人民
經濟從業員数：同 p.171

社会総生産：同 p.196；1人当 GNP：1965 까지 同 p.209

1972-74 (世銀) 同 p.208.

나. 1960年代

이와같이 50年代末까지에는 그들이 말하는 農業集團化 및 商工業의 社會主義的 改造의 完成이라는 이름 아래 勞動力의 集中的 強制的 組織管理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때, 60年代에는 高率成長이 期待하기 어렵게 되었음이 分明하다.

高率의 經濟成長을 위하여는 雇傭員의 增大가 아니면 生産性的 向上이 急速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들의 強制性으로써 가장 하기 쉬운 勞動力의 動員이 限界에 다달았던 것이다. 生産性的 增大는 機械化와 設備稼働率의 增大가 先決이다.

이런 점에서 그들이 緩衝期(1960年) 所謂 基本課題로서 ①農業의 機械化 ②勞働生産성과 設備利用率의 向上을 60年代 初頭의 經濟政策의 力點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體制로써는 生産性 向上을 實現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곧 그들은 새로운 勞動力源의 發掘에 着手한 것으로 보인다.

7 個年計劃(1961-1967)에서도 그들의 수많은 基本課題中에서 ①全面的 技術革新 ②農村經理의 機械化 ③技術裝備의 改善 ④文化革命 ⑤幹部의 理論水準과 實務能力提高와 같이 生産性向上과 關聯되는 項目이 다섯가지나 되어^{註)} 그들이 그 期間中 얼마나 生産性的 停滯 現象에서 벗어나려고 苦心했는가를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人民經濟從業員數의 增加率에 對한 1人當 GNP의

註) 前掲統計集, p.p.42-49.

增加率을 가지고 그들의 限界生産性을 보면. 即

$$p = \frac{Y_t/Y_0}{E_t/E_0}$$

但. p는 限界生産性

Y_t, Y_0 는 各々 期末과 期初의 1人当 GNP

E_t, E_0 는 " " 人民經濟從業員數

에 依하여 計算해 보면.

6.25 后의 戰后復旧期에 該當하며 또한 共產國家의 援助가 세법 來到했던 1953-1956 年의 3 年間에는 限界生産性이 1.5 ($E_t/E_0 = 1.4, Y_t/Y_0 = 2.1$) 이던 것이 1956-1959 年의 3 年間에는 1.2 ($E_t/E_0 = 1.7, Y_t/Y_0 = 2.0$) 로 低下되었던 것이 1959-1962 年의 3 年間에는 다시 1.0 ($E_t/E_0 = 1.2, Y_t/Y_0 = 1.2$) 로 떨어졌으며, 1962-1965 年의 3 年間에는 0.9 ($E_t/E_0 = 1.2, Y_t/Y_0 = 1.1$) 로 더욱 떨어졌다. 그것은 마침내 1962-1965 年間에 이르러 生産增加速度가 雇傭增加速度에도 미치지 못하는 狀態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意味하느냐. 그것은 두말 할것도 없이 作業能力이 平均以下인 어느 集團이 人民經濟從業員이라는 組織적으로 管理되는 雇傭量에 投入되었다는 것을 意味한다.

前述한 7 個年計劃期間中の 主要政策中 「農村經理의 機械化」란 다름 아니라 集團農場이나 協同農場의 資金과 物資収納에 機械를 導入함으로써 그에 從事하던 大部分 女性이었을 勞動力을 物資生産 作業에 投入하겠다는 것이며. 所謂 「文化革命」이란 「밥工場」에 依해서 婦女의 家事從事時間마저 生産作業에 投入하겠다는 것이고

所謂 「託兒所」 「幼稚園」이라는 것은 幼兒時부터의 共產主義教育의 注入이라는 明白한 目的外에 集中育兒를 通해서 婦女의 애보는 時間마저 生産作業에 投入하려는 技法으로 생각된다.

그러면서 이와같이 非人間的 動員을 美化하고 때로는 說得하며 때로는 強制脅迫하기 위해서 「幹部의 理論水準과 實務能力의 向上」이 必要했을 것이다. 同時에 「技術革新」과 「技術裝備의 改善」도 버릴수 없는 口頭彈임에 틀림없다.

1968年, 7個年計劃의 失敗自認·延長을 함에 있어서 追加된 또 하나의 重要政策 即 「經濟建設과 國防建設의 併進」은 全 婦女勞動力의 投入으로써도 遲々不振한 經濟에 보다 큰 軍事費負擔을 안김과 同時에 學生, 未成年少年·少女·老弱者까지도 生産作業에 投入할수 있는 口實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不拘하고 그들의 經濟成長率은 1960 - 1973年間 年率 4.6%에 지나지 않아 人口增加率을 僅少하게 上廻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1965 - 1973年間에는 2.7%로서 人口增加率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다. 1970年代

1960年代에 그들은 이미 婦女勞動力은 勿論 老弱勞動力까지도 짜낼대로 짜내서 그들 特有的 強制動員만 가지고는 經濟成長이 停滯하여 1人當所得에 있어서는 后退까지 하게 되었을 可能性이 있게 되었다. 이와같은 狀況下에서 國際關係가 急變하고 南北交流의 曙光이 비치는듯 하게 되었던 1970年代初에 그들은 南北韓國民生

活水準差를 發見하게 되었을 것이다.

6.25后 復旧期에 導入된 機械設備는 落后되고 老朽化하여 그 改替도 時急하였을 것이고. 한편 軍備強化를 위하여는 現代兵器와 軍需設備의 導入等 莫大한 外貨를 所要하였을 것이다.

이와같은 狀況下에 着手된 新6個年計劃(1971—1976年)에서는 「工業의 體質改善」과 「技術革命次元의 提高」라는 政策目標를 내걸게 되었다. 前者는 設備改替를 위한 口號이고 后者는 西方의 先進 新技術의 導入을 위한 口號일 것이다. 新設備, 新技術, 新兵器의 導入을 위한 手段이 그들이 저지른 外交官密輸와 外債償還不能事態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하여 1970年代 前半 資源의 國際市場價格이 大幅 高騰한 時期는 차치하고 國際市場이 長期沈滯에 빠지고 더욱이 北傀의 支拂不能事態等이 顯著化한 以上 1970年代 後半에는 北傀經濟가 尤甚한 沈滯 乃至는 마이너스成長을 記錄하고 있을 可能性이 甚다.

라. 北韓經濟體制의 變動要因

北韓의 體制가 이와같이 硬直的·스타린時代的인 것으로 解放后 繼續 強化되어 온 것에는 經濟內外的要因이 作用한 것은 疑心의 餘地가 없다. 또한 앞으로의 向方도 이와같이 複合的的要因에 依해서 占쳐질수 있을 것이다.

經濟外的要因:

우선 經濟外的要因을 볼때,

첫째 政治的으로는 繼續 金日成唯一支配下에 지금까지 그 體制는

비록 便宜와 段階에 따라 漸進적으로 強化되었을지 언정 体制 그 自体에 變動은 없었다. 將次 金日成死后에 그 後繼者가 溫健한 者일 것이나 強硬한 者일 것이나 하는 것이 그 体制變動의 重要한 要因이 될 것은 말할 必要도 없다.

물째 社会·文化的 側面에서 볼때, 共產國家의 文化는 政治의 侍女에 不過하고, 또한 社会的으로도 強烈한 不平·不滿이 累積됨에도 不拘하고 徹底하게 組織的이고 無慈悲한 統制下에서는 그것이 露出되기 어렵고, 더욱이 매스콤이 共產黨에 完全掌握되어 있는 以上 그것이 設使 露出되더라도 伝波·波及되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選扞的投票에 依한 選舉가 없는 그 社会에서 潛在的 不滿같은 것에 拘碍받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치 스탈린時代에 없던 反体制人士가 그 死后에 생겨나고, 東獨에 없는 暴動이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에 일어난 것과 같이 体制의 變動조짐이 보일 때에나 社会的 不滿의 露呈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先導할 수는 없다고 본다.

國際關係는 그들의 態度에 實質的變化를 全然 주지 못하였다. 그들은 國際情勢의 變化에 對해서 때로는 偽裝·順應하고 때로는 無視하면서 그들의 目的을 위해 手段을 가리지 않았다. 外部的變動이 그들 国内에 波及되는 것을 徹底하게 封鎖하고 있는 狀況下에서 外部的 壓力이 먹혀들 素地는 稀薄하다. 다만 美·日等의 政府와 매스콤이 그들 指導部의 非理를 깨우치는데 確固하게 되고 또 可能하면 中·소中의 하나 또는 둘이 다 그와같이 하게 될 때에는 体制變動의 要因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對南關係는 北傀体制의 變動要因이 됨과 同時에 그 結果일수도 있다. 70年代初에 一旦 씩뒀던 南北對話가 그들에 依하여 一方的으로 斷切된 것은 南北關係가 그들 体制의 結果임을 보여주는 例이다.

經濟內的要因 :

經濟內的인 体制變動의 要因을 따질때 흔히 利潤動機라던지 消費者 選好라던지 或은 計劃의 分權化 그리고 市場機能等を 提論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經濟的 自由의 尺度는 될지언정, 그것을 齊來하는 体制變動의 要因이 될수는 없다. 이것은 特히 國民生活을 無視하고 政治가 있을 수 있는 北傀体制下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萬一 共産黨이 國民生活을 無視하고 例컨대 軍備의 擴張이나 어떤 計劃에 資源을 集中投資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消費者選好도 市場매카니즘도 그리고 計劃의 分權化도 一切 許容하지 않고 다만 配給과 割當의 徹底만 期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反對로 그들이 어떤 必要에 依해서 一定水準以上으로 國民生活의 向上을 圖謀하게 되면 그것은 곧 消費의 多樣化(따라서 商品의 多樣化와 消費者選好)의 許容,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生産의 動機賦与가 真正으로 作用할수 있게 되고 (왜냐하면 超過보너스를 支給받더라도 配給品外에 剩餘物이 없으면 消費가 없으니까) 그것은 나아가 市場매카니즘의 確保를 要하게 되고 그되기 위해서는 計劃의 分權化가 必須的인 것이다.

計劃의 分權化는 外形的 分權化 그 自体에 意義가 있는 것이

아니고 消費者 乃至 使用者의 選好와 欲求가 얼마나 中央計劃當局에 反映되느냐에 依해서 그 實效를 거두는 것이다. 그리고 市場매카니즘은 市場價格을 통해서 生産者追求와 消費者欲求를 合致시키는 機能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境遇 體制變動의 要因은 어디서 求할수 있을 것인가.

北傀와 같은 體制의 經濟的 特徵은 첫째 支出國民所得에서 一般消費를 最少限(生存水準)으로 抑制할 수 있으며 따라서 經濟水準에 比하여 매우 큰 強制貯蓄을 할수 있고, 그 餘額이 中央政府의 統制下에 놓여 進다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둘째, 分配國民所得에서는 支出面의 一般消費에 該當하는 賃金外의 生産額(即 市場經濟에서의 地代 利子 利潤에 該當하는 分)이 去來稅나 企業利潤이라는 名目으로 政府統制下에 놓이게 된다는 點이라 할수 있다.

生産(P), 分配(Y), 支出(E) 國民所得은 原則적으로 等價 即 均衡되어야 한다. 그런데 저社會에서는 消費가 徹底하게 統制되고 貯蓄에 對한 利子給付가 없으며 個人投資도 없으므로 賃金の 合計(W)는 一般消費의 合計(C)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Y - W = E - C$$

에서

$$W = C$$

이므로

$$S = G$$

이 되어 結局 國民貯蓄(S)이 政府支出(G)과 一致하여야 한다. 여기서

單純化를 위하여 政府支出을 軍事的支出 (G_m) 과 非軍事的支出 (G_n) 로 区分할수 있다. 即

$$G = G_m + G_n$$

이 된다. 여기에서 非軍事的支出은 党·政府의 一般管理費와 民需産業投資(I)로 나뉘어 지는데 一般管理費에는 限界가 있으므로 結局 政府支出은 民需産業에 對한 投資에 力點을 주느냐 軍事支出에 力點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支出 配分이 決定될 뿐아니라 前者의 境遇에만 消費者選好와 勞動인센티보制度의 導入을 促進하게 되어 計劃管理의 分權化와 市場메카니즘의 回復으로 이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民需投資를 增大시킨다는 것은 民需生産을 增大시키고 國民消費水準을 向上시킨다는데에 目的이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民需生産의 売出口가 막히게 될 것이므로, 貯蓄의 強制를 그만큼 緩和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反面에 軍事費支出에 力點을 繼續두고자 할 境遇에는 新規 民需投資를 零化하고 國民消費를 過去의 水準에서 抑制하므로써 軍需産業 生産增加로 이루어지는 國民生産增加分을 그대로 強制貯蓄하여 軍事支出에 充當하게 될 것이므로 消費의 擴大와 經濟運營面의 改革은 期待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와같이 消費者選好의 回復이건 市場機能의 回復이건 計劃의 分權化를 不可避하게 할 北傀의 經濟體制의 變動은 國民生活水準을 向上시킬 必要性을 저들이 얼마나 크게 느껴서 政府支出 가운데 民需産業에 對한 投資를 增大시키느냐, 바꾸어 말하면 政府支出에서

軍事支出의 比率을 얼마나 低減시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政府支出의 力點이 軍事支出에 놓이느냐 非軍事支出에 놓이느냐 하는 問題와 같은 政策決定은 合理的(經濟的)計算에 依해서라기 보다 多分히 經濟外的인 衝動에 依해서 決定되기 쉽다는 點에 經濟의 限界가 있는 것이다.

6. 北韓 經濟體制變動의 影響分析

萬一에 經濟體制改革이 있게 되면 그것이 미치는 影響은 어떤 것인가를 본다는 것은 單純한 展望을 위해서 뿐 아니라 그들이 이에 어떻게 對處할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다.

가. 政治에 미치는 影響

自由圈에 있어서는 經濟가 政治에서 相當히 重要한 比重을 占한다. 그런 意味에서 政治가 經濟의 侍女라고도 할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北傀와 같은 政治體制下에서는 投票의 意味(威力)가 없기 때문에 經濟가 政治에 別로 影響을 미치지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經濟가 政治의 侍女인 것이다. 이것은 적어도 그쪽의 經濟가 先進之境에 이르기 前까지의 可視的 將來까지는 妥當한 것이다. 지금까지 經濟面에서 消費를 極度로 抑制하는 것을 持續하는 한편 勞動의 強制를 強化하여 온 그들의 政治體制에 變動이 없었지 않은가.

設或 北韓의 經濟運營方式에 어떤 變化가 있게 되더라도 그것은

北傀의 政治的必要에 依하여 許容되는 것이며, 그 許容은 決코 政治体制自体에 改革을 要 할 程度까지는 許容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컨대 市場매카니즘과 價格매카니즘을 容認한다는 것은 金日成의 權能을 弱化하는 것이며, 消費者選擇이 그의 消費指揮力을 鈍化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이와같은 것은 「金日成唯一思想」에 違背되는 것이 必至이므로 民需投資를 增大시킬 때는 市場매카니즘과 消費者選擇을 抑制할 수 있는 裝置를 事前에 마련하고 난後에나 行할 것이 틀림 없다.

그러나 長期的으로는 經濟水準이 先進圈에 접어들고, 軍事支出이 限界點을 넘어서게 되면, 좋은 싫든 政府의 民需投資比重을 增大시키지 않고서는 經濟規模의 擴大를 持續할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經濟적으로 複雜한 問題가 惹起되고 또 그것이 政治에 미치는 影響 또한 클 것이다.

이때 政治面에서는 對外閉鎖가 無意味하게 되고 内部의 統制를 緩和하지 않을수 없게 될 것이다.

나. 經濟에 미치는 影響

政府의 民需投資比重이 增大하게 되면 經濟運營方式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은 變革이 따라야 한다. 그와 같은 變革은 自然히 多樣하게 나타날 消費者의 嗜好에 따라서 商品의 多樣化를 要求하게 된다. 商品의 多樣化를 위해서는 그때까지 劃一的消費를 強要해 온 그들로서는 各種의 新規消費財生産을 위해서 莫大한 投資를

所要하게 된다.

그들에게는 唯一한 投資財源인 強制貯蓄은 消費増大를 위하여 減縮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우선 資本의 不足이라는 現象에 부딪치게 된다. 그리하여 마치 自由圈에서 흔히 取하는 后方向開發方式(消費財·經工業으로 부터 生産財·重工業으로의 開發方式)에 있어서 工業化初期에 当面하게 되는 것과같은 外貨不足狀態에 뒤늦게 陷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市場機能의 回復이나 消費者選擇의 幅, 그리고 計劃의 分權化等 一連의 經濟政策은 漸進적으로 取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

万一에 經濟改革을 서둔 나머지 消費財의 超過需要가 一時에 發生하게 되면 그것을 收拾할 길이란 外國資本 導入의 累增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共產國家에 對한 西方의 信用供與는 그 期間이 짧고 價格도 償還拒否의 可能性이 주는 危險負擔 만큼 높은 것이 一般的이다. 그와같은 狀況下에서 超過需要·供給不足事態를 收拾할 길이 莫然할때 그들은 十中八九 改革以前의 狀態로 后退할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본다면 北傀의 最近數年間의 外債累積은 그것이 앞으로의 南北交流에 對備하여 國民消費擴大를 위한 것인지 또는 對南挑發을 위한 新式軍事裝備導入資金의 捻出을 위한 것인지는 別個問題로 하더라도, 그 償還不能事態가 그들의 經濟運營方式을 보다

硬直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짝다.

다. 社会·文化에 미치는 影響

大概 共産化初期에는 国民消費를 抑制하고 勞動力의 強制動員으로 因해서 造出할수 있는 그들의 말 대로 「超過生産」分을 한편으로 軍事費支出에 消費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다지 높은 技術을 要하지 않는 公共施設의 建設이나 簡單한 工場設備에 使用한다. 그럼으로 그런 곳에는 外觀上 그럴듯한 文化·公共施設이 갖추어지기 쉽다.

그러나 本來가 劃一性和 抑壓을 特色으로 하는 그들 體制로 因해서 社会·文化의 踏歩와 內的 不充實을 갖게 할 것이다. 여기에 經濟運營方式의 改革이 進行하여 그때까지의 「生存」水準에서 「生活」水準으로 그들의 生活이 向上되게 되면, 消費者嗜好는 多様な 物質 뿐 아니라 文化와 서비스에 對하여도 發露하게 될 것이다.

現今 東歐와 소련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傳해지는 西方音樂이나 西方의 뉴스메디아에 對한 渴求같은 것이 나타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이미 普及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이알固定式 라디오代身 다이알이 固定되지 않은 라디오를 願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北傀가 텔레비를 普及하게 되면 틀림없이 有線텔레비를 普及하려 하겠지만 그때에는 無線텔레비를 願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만큼 消費者選擇이 可能하게 되면 그만큼 文化的選擇 나아가 社会的 自由의 幅도 커지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라. 對南關係에 미치는 影響

北傀가 經濟運營方式을 改革하게 되어 國民生活의 向上과 消費者自由制限의 緩和 그리고 計劃의 分權化를 指向하게 될때, 그것이 곧 南韓을 겨냥하는것이 分명한 軍事支出增大를 抑制하거나 減縮한다는 것을 意味한다고 본다면 그때부터 그들과의 對話와 交流가 可能하게 될 可能性이 질다.

다만 그들이 國民生活의 對南優位를 確保하기 前에는 對話에도 交流에도 應하지 않을 作定이라며는 南北解氷은 遼遠하다고 볼 것이다. 왜냐하면 各樣한 消費財生産能力을 欠如하는 가운데 消費生活의 部分的自由化는 間或 유고스라비아의 境遇가 보여 주듯이, 市場과 物価體系에 二重性을 露呈시켜 甚한 인프레壓力을 갖어올 것이며, 한편 市場機能을 無視하여온 타성에 젖은 計劃이 아무리 分權化된다 해도 無形의 市場매카니즘을 計劃에 反映시키기에는 長久한 試行錯誤를 要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 國際關係에 미치는 影響

西方式貿易 慣行(西歐의 生活方式의 所産)에 影響받고 輸入所要內 輸出의 原則으로 부터의 離脫과 對外信用恢復의 主要性を 認識하게 될 것이다.

7. 共產圈諸國의 經濟体制變動

共產國家의 經濟改革에 關한 展望을 위해서는 그에 關한 限先發國家群이라고 할수 있는 東歐諸國에서의 經濟改革을 注目하여 거기에서 一種의 道標를 찾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가. 經濟改革의 動機

우선 東歐諸國에서 經濟改革이 일어나게된 動機를 살펴 보되

東歐 9 國 가운데 아직도 閉鎖的인 알바니아를 除外한 나머지 8 個國을 3 個類型으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

1) 유 고

① Cominform 에서의 追放 (1948)

② 國民大衆의 支持獲得必要性 (一般大衆의 改革에 對한 壓力上昇)

2) 체코 , 헝가리 , 폴란드 , 東獨 , 蘇聯

① 旧体制下에서의 非效率的인 浪費要因의 激甚

3) 불가리아 , 루마니아

① 量的成長要因이 아직 存在했었으나

② 先進社會主義國家의 經驗으로 부터 改革의 必要性 認識^{註)}

여기에서 分明히 나타나는 바 세 가지에 注目을 要한다 . 그 하나는 , 國民大衆이 旧体制 (스탈린式体制) 로부터의 離脱을 渴望한다 . 이것은 곧 스탈린主導下의 Cominform 에서 追放된 유고에서 티토가 國內의 大衆的 支持를 獲得하기 위하여 共產圈 經濟改革의 先導 役割을 担当하였고 또 그것이 成功的이었다는 事實에서 窺보이는 것이다 . 그들째는 , 經濟改革의 自生可能性은 經濟가 어느水準以上의 先進之境에 到達했을때에 發見된다 . 그것은 체코 , 東獨 , 헝가리 , 폴란드 , 蘇聯等 이른바 先進共產圈에서 스탈린体制下의 激甚한 非效率과 浪費要因이 發見되고 그 是正이 要求되었다는 點에 나타난다 . 따라서 先進共產圈에 屬하지 못하는 유고 , 불가리아 , 루마니아에서는

註) 國土統一院刊 , 東歐諸國의 經濟改革過程分析要約 . P.21 .

改革이 他發的으로 생겨났다. 그 셋째는, 共產圈經濟改革은 그것이 設或 先進之境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어떠한 衝擊(유고의 경우)이나 나 展示에 依해서(불가리아, 루마니아의 경우)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 改革의 過程

그러면 이와같은 動機에 依해서 推進된 東歐의 經濟改革이 어떠한 過程을 밟아 왔는지를 보자.

50年代初 : 유고 : • 指令的年間計劃 廢止

• 價格메카니즘의 部分的 導入

• 勞動者에 依한 自治的經營 導入

50年代 後半 : 폴란드 :

• 勞動者會議 法制化

• 市場메카니즘에 關한 몇 가지 實驗

蘇 聯 : 經營管理의 自治化 地域에 따라 施行(結果의 實驗?)

헝가리 : 經濟計劃과 價格策定에 있어서의 分權化

1960 : 폴란드 : 生産者價格의 改革

1963 : 헝가리 : 計劃, 管理面의 分權化

폴란드 : 工業部門管理의 分權化

東 獨 : 新計劃, 管理制度指針 採択

루마니아 : 生産者價格의 改革

1964 : 헝가리 : 工業에 資本使用料 導入

체코 : 私企業에 對한 몇가지 穩和策 採択

東 獨 : 經濟計劃, 管理, 價格策定, 生産者價格, 小売價格, 賃

金制度 改革

1964 - 65 : 蘇聯 : 企業成果指標로서의 利潤制 實驗

1965 : 유고 : • 加一層의 分權化에 對한 全般的改革

• 財政, 金融政策의 役割 強化

• 農業에 有利하게 價格改革

蘇 聯 : • 私有菜田耕作 許容

• 企業에 獨自性 大幅 賦与

• 企業成果指標로서 利潤採択

1966 : 폴란드 : • 物的인센티브制度 改革

• 企業의 自体 • 自給調達 強化

1967 : 체코 : • 計劃 • 管理의 分權化

• 伸縮的 價格制度 導入

蘇 聯 : • 生産者價格 改革

불가리아 : • 計劃管理의 分權化

• 銀行制度 改革

1968 : 헝가리 : • 伸縮的價格制度 導入

• 農業에 物的인센티브制 導入

東 獨 : 金融制度 改革

헝가리 : 金融制度 改革

루마니아 : • 金融制度 改革

불가리아 : • 農業 및 工業製品의 都売, 小売 價格 改革

• 輸入商品 價格 改革

1969 : 루마니아 : • 物的인센티브制 擴大

• 企業의 獨自性 擴大

• 外國貿易의 分權化

東 獨 : 工業 價格 改革 (註)

다. 改革推進의 緩速

이상의 여러 東歐共產圈 國家의 經濟改革의 進行過程을 보건데 各國은 各國의 情況에 따라 그 進行先後가 相異하기도 하고 또 그 改革의 市도 各樣各色일 것이 分明하다. 또한 거기에는 分明히 改革推進을 急速度로 行하는 나라도 있고 緩慢하고 操心性있게 行하는 나라도 있다. 여기서 유고를 除外한 東歐各國中 가장 改革이 많이 進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헝가리의 境遇를 보면 50年代 後半에 • 經濟計劃과 價格策定에 關한 分權化를 試圖하였다가 1963년에 • 計劃管理面의 分權化를 行하고 1964년에는 • 工業에 資本使用料(利子)를 導入하였으며 1968년에 • 伸縮的 價格制度를 導入하고 • 農業에 物的인 인센티브制를 導入하였고 金融制度를 改革하였다.

여기에서 볼때 그들은 ①우선(1950年代에) 計劃과 價格에 커니즘에

대한 試驗을 實施하고 그 結果에 따라 修正補完하였을 ②計劃, 管理의 分權化를 斷行하였다(1963) 그리고 ③原價計算上 利子概念을 導入하였는데(1964) 이는 事業採択크라이테리아의 費用面에 賃金· 原材料外에 資本所要를 反映시킨다는 意味를 갖는 것이며 同時에 事業의 功過에서 相對的 產出能力 뿐만아니라 資本의 回轉速度도 重要하다는 것을 認識하게 된 것이다. 다음에 ④伸縮的 價格制度를 導入하였는데(1968), 이것은 한편의 生産者 立場에서 固定價格下에 累積되기 쉬운 在庫品을 低價로 賣出하므로써 資本回轉率를 높이는 效果가 取해졌을 것이며 또 한편 需要者立場에서는 消費者欲求가 價格을 通해서 製品計劃에 反映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利潤制의 導入으로 延長되었을 것이다. 管理面의 分權化의 導入과 利子概念의 導入 따라서 利潤制의 導入은 伸縮價格制의 導入과 더불어, 地域別 또는 企業別로 差異는 있을지라도 勞動에 對한 物的인 센티브가 주어졌을 것이다. ⑤여기에서 農業勞動者의 生産意欲을 鼓吹하기 위해서 物的인 센티브制의 導入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1968). 그리고 나면 超過貨幣所得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問題가 된다. 그것이 모두 가뜩이나 不足한 消費財에 對한 需要로 나타나면 容認하기 어려운 인프레壓力이 될 것이고 또한 資本形成에도 逆行한다. 그러므로 그와같은 個人의 貨幣資金을 預受하고 生産部門에 貸出하는 方向으로 金融制度가 改革되었든 것이다(1968). 이것은 다른아니라 그들에 依하여 抹殺되었든 銀行本然의 役割 가운데 主要한 部分이 復活한 것이다.

<圖 7 >

東歐圈 經濟改革的

	貿易分權化	計劃管理 分權化	價格改革	伸縮價格 制導入	企業의 自治的經營
유 고		① ②	② 農에 有利化	① 部分	①
헝가리		② ①	生産者 ② 價改革	⑤	③
체코		②		②	
폴란드		③ 工業管 理分權	① 實驗 ② 生産者 價格改革		① 労働者會議 ④ 企業目体 自給調達
東 独		① ②	② ④		
소 聯			④ 生産者 價		① 實驗 ③
불가리아		①	②		
루마니아	③		① 生産者 價改革		③

国別・分野別 先后一覽

財政金融 役割強化	利 子 制	企業成果指標 로서 의 利潤	私企業私有地	賃 金 制 度 (物的인센티브)
②				
⑥	④			⑤農限
			①私企業 一部緩和	
				④
③				②
		②実験 ③採択	③菜田	
①				
②				③

이와같이 매우急速하고 広汎하게 經濟改革을 推進하는 一部 東
歐國家에 反해서 또 一部에서는 매우 慎重하게 實驗을 해가면서
이境遇 實驗은 자연 經濟改革이 自己내의 政治体制 乃至는 政權에
어떤 影響을 미칠 것이냐 하는 問題의 규명을 目的하겠지만
매우 緩慢하게 推進하는 側도 보인다. 그 例가 蘇聯과 폴란드이다.
蘇聯의 境遇: 蘇聯은 50年代後半에 企業經營 管理의 自治化를 地域
에 따라 試行하였다.

1964 - 65年間에는 企業成果의 評價指標로서 利潤制를 導入하는
實驗을 實施하였다. 兩實驗은 分明히 害롭지 않다는 것이 判明된
模樣으로 1965년에 이르러 企業에 大幅的 獨自性이 賦与되고. 經營
成果指標로서 利潤을 公式採択하였다. 그와 同時에 農業에 있어서
는 菜田의 私有가 認定되었다.

1967년에 이르러 生産者價格의 改革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生産
者價格水準은 産業에 따라 利潤幅이 4%台(石油採取, 精油)乃至
25%(石炭)으로 擴大되었다. ^{註2)} 이와같이 生産者價格이 上向調
整된 것은 外面上 限界企業과 限界土地의 存立, 耕作을 可能케 하
고 擴大하려는 것이며, Shadow Price를 資源配分에 適用하려는
意圖라고 풀이되지만, 必竟 內面的으로는 利潤制導入으로 恒久的 赤
字企業으로 밖에 評價받지 못할 限界企業의 赤字要因을 扠拭하여
주므로서 利潤에 依한 經營成果評價의 対象 範疇에 包括하고자 하

註) 前掲事. P. 29

는 意圖가 가장 直接的原因일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去來稅로 인한 過重한 稅負擔의 認識을 씻기 위하여 去來稅를 利潤으로 代置하고자 하는 紛飾을 目的으로 하였을 것도 分明하다.

• 폴란드의 境遇 : 폴란드는 北歐計量經濟學派의 3태두의 1人(O-ska Lange :故우릿슈, 틴바겐과 함께)을 包容하고 있던 나라답게 매우 慎重한 그러나 着實한 推進方式이 엿보인다. 우선 그들은 1956년에 市場매카니즘(即 價格매카니즘)의 部分的導入 實驗과 함께 企業의 自治 乃至 獨自的經營에 關한 實驗이라고 볼수 있는 勞動者會議를 法制化 하였다.

市場매카니즘에 對한 實驗의 結果는 1960년에 實施한 生産者價格改革으로 나타났고, 한걸음 더 나아가, 1963년에는 工業部門管理의 分權化를 斷行하게 하였다. 勞動者會議로써 行한 企業經營의 實驗結果는 꼭 10年後인 1966年 企業의 獨自性(自体自給調達) 強化와 物的인센티브制의 導入으로 나타났다.

東歐의 經濟改革의 現段階와 그向方을 점치기 위해서는 別添Ⅱ. 「Drewnowski의 二重選好體系下 市場利用의 諸段階」의 吟味를 參考하기 바란다.

8. 東西經濟의 收斂可能性과 南北韓經濟의 接近可能性

西方先進國에 있어서는 分明히 收斂의 方向으로 進行되고 있다는 徵兆가 있다. 그리고 東歐쪽에도 分明히 收斂을 向한 그러나 매우 緩慢한(或은 慎重한) 改革의 進行이 窺보인다.

그러나 餘他の 後進的 共產圈에서는 그러한 徵候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理論上 뿐 아니라 實際에 있어서도 收斂이 先進的 兩體制間에 妥當하다는 것이 證明되는 것이다.

韓國은 틀림없이 80年代에는 先進的 經濟圈에 들 것이며, 그렇게 되면 收斂을 위한 基盤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經濟는 發展이 遲々不振할 것이 予想되어 그 先進化는 매우 遼遠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南北韓의 經濟的接近可能性은 收斂理論에 따라서가 아니라, 바로 그 收斂基盤이 되는 先進化를 北韓에 齊來하기 위한 方便으로 模索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 된다.

Samuelson은 收斂理論에 對해서 적어도 部分的으로는 否定的인 立場을 取한다. 그러면서 그는 經濟學의 本流(Main Stream Economics)는 美國에서는 制度學派로 代表되는 古典學派에서 케인즈 그리고 포스트 케인즈學派로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볼 때 餘他の 모든 學派는 그것이 急進主義이건 마르크스主義이건 間에 支流에 不過하여, 그것들이 本流로 吸收되고 包容된다는 點은 自明한 것이다.

自然增加以上の 雇傭 增加를 이以上 期待할수 없는 北韓經濟가

經濟의 高率成長을 이룩하여 先進化하려면 資源의 轉用이 아니면 生産性 向上밖에 道는 없다.

여기서 可能的 資源轉用은 過重한 軍事支出을 減縮하여 그만큼 民需投資를 增大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한편에서 民需部門生産을 增大시킬수 있음과 또 한편에서 民間消費擴大를 結果할 強制貯蓄의 減縮으로 連結될 것이다. 結果的으로 市場메카니즘이 復舊되고 消費者選好가 作動하게 되고, 그에 따라 漸次 商品의 多樣化와 서비스의 向上이 생겨날 것이다. 이때 生起할 需要超過現象은 生産面에 인센티브制와 利潤制導入을 必要하게 할 것이며, 消費할수 있는 商品이 있으므로 해서 인센티브의 效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때에는 이미 先進化하여 있을 韓國經濟에게서 事例와 技術을 배우고 合致點으로 接近할수 있게 될것이다.

그렇다면 北韓經濟가 發展할수 있는 經濟改革의 道는 軍事支出의 抑制와 民需投資의 增大로써만 通여질수 있는 것이니, 軍事支出의 抑制와 民需投資의 擴大가 어떤 誘因(多分히 經濟外的인 것이겠지 만)에 依해서 齊來되어야만 收斂이 期待可能하게 될 것이다.

[別添 I] 틴버겐의 收斂假說 (Convergence Hypothesis) 에 關하여

이는 所謂 社會主義經濟는 漸次 在來의 中央集權的經濟體制方式에서 逸脫하고 自由主義經濟는 自由放任에서 逸脫하므로서 兩者가 漸次 類似한 패턴으로 변모하여 간다는 것이다. 即 相克的인 것으로 分極化되었던 兩者가 漸次 하나의 패턴으로 收斂된다는 것이다.

이 理論의 時代的背景은 東西兩陣營間의 冷戰狀態가 소련에서의 후르시초프의 登場과 헝가리, 폴란드等 一部 東歐國家에서의 連이은 反蘇烽火起等으로 소련 東歐에서 經濟의 計劃과 運營方式에 修正을 加하게 되고, 反面 自由陣營에서는 그것이 單純히 指標的이건 目標提示的이건 어떤 形態이건 間에 經濟計劃이 樹立되기에 이르렀으며 東西陣營間에 平和共存論이 抬頭된 때에 즈음한 것이다.

收斂假說의 成立을 뒷받침하는 것으로는

첫째, 經濟에의 接近態度面에서 本來 微視經濟를 無視하던 蘇, 東歐에서 微視經濟의 比重을 자꾸 높이고 있으며, 過去에 微視中心的이었던 自由陣營에서는 巨視經濟가 強調되고 있고.

둘째, 經濟計劃面에서 蘇, 東歐에서는 細細한 部分까지 上部로부터의 一方的 下向的計劃이던 것이 大綱의 下達과 上向的計劃으로 移行하는 反面 自由陣營에서도 指標的이건 目標設定的이건 間에 經濟計劃이 樹立되는 傾向이 있다.

註) J. Tinbergen, Do Communist and Free Economies Show a Converging Pattern? Soviet Studies, April 1961.

세째, 經濟行政面에서 蘇, 東歐의 經濟改革이 權限의 下部에의 分散의 方向으로 進行되고 있는 反面에 自由陣營에서는 集中과 集權化傾向을 띄고 있다.

네째, 經營面에서 蘇, 東歐에서 勞動者가 企業을 運營한다는 생각을 버린지는 이미 오래이고, 今日 그쪽의 企業長은 어느面에서 自由陣營의 經營者에 흡사해지고 있다. 한편 自由陣營에서는 資本과 經營이 分離되어 가고 있다.

다섯째, 金融面에서는 過去의 指示的 經濟運營方式이 資金的誘因과 抑制로 代置됨에 따라서 銀行은 投資事業의 選定과 經濟的 資金供給에 漸次 參與하게 되고 反面에 自由陣營에서의 金融政策의 役割은 過去와 같이 巨大하지 못하고 더욱더 財政政策 賃金政策 所得政策等に 依해서 補完되는 傾向을 갖는다.

여섯째, 利潤이라는 面에서는 東歐에서는 利潤이 企業의 業績評價基準이 되고 또한 그것이 經營者와 勞動者間에 分配되기도 한다.

自由陣營에서는 事業의 國營이 利潤動機에 依하지 않는것이 普通이라는 點은 말할 것도 없고 一般企業에 있어서도 短期的 利潤極大化가 目的이 되지는 않는 境遇가 많다. 그리고 利潤의 勞資間分配도 생기고 있다.

일곱째, 所有制度面에서 東歐에서는 어느程度까지의 農地의 私有制가 復活하고 食糧, 家畜, 家內工業 小売業 등이 私營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한편 自由陣營에서는 重要産業等の 國有化가 增大되고 從業員持株制 등이 普及되어 간다.

여덟째, 所得分配面에서 共産國家에도 疎存하는 上層과 一般勞動者 間의 所得不均衡은 東歐에서 增大하는 物質的인센티브제에 依하여 더욱 擴大되고 있다. 自由陣營에서는 累進稅制과 公共서비스의 擴大와 最低勞賃制等으로 所得의 公平이 增大되고 있다.

아홉번째, 社會構造面에서는, 共産圈에도 勞動者, 農民, 인테리, 黨僚, 테크노크라트, 와 經營者階層等 階級の 存在가 明白해지고 있다. 自由陣營에서는 教育機會와 社會的移動性的의 增大 그리고 豊饒化에 따라 階級差가 稀薄해지고 있다.

열째, 價格面에서 蘇·東歐에서는 在來의 固定價格에 代身하여 市場價格의 役割이 增大되고 利子와 賃料概念도 費用에 導入되고 있다. 自由陣營에서는 市場價格에 對한 政府의 干与(例컨데 農産物 價格支持, 補助金, 間接稅等)와 独占價格의 形成等이 價格으로 하여금 要素費用을 正確히 反映하지 못하게 된다.

열한째, 消費者役割面에서는 蘇·東歐의 經濟改革以來 消費者選好가 漸次 重視되기에 이르고 있으며, 그것은 所得水準이 向上되고 買方 市場이 發展함에 따라서 더욱 더 重要視될 것이다. 自由陣營에서는 한때 「消費者는 王」이라는 말이 나타났는데 消費者의 生産「패턴」支配能力이 生産者談合, 政府干与, 廣告의說得力과 消費慣習等으로 因하여 制約되고 있다.

열두째, 東西間 貿易面이 近年 急速히 伸長하고 그만큼 兩쪽에서의 貿易에 對한 政治的干与가 緩和되어 간다는 것 등이다.

이와같은 變化가 생기게된 經濟外的 要因으로는 冷戰의 終結과

平和共存 그리고 兩陣營內部가 各各 多岐化되고 그에 따라 各各의 陣營의 團結이 弱化되는 것이 指適되고 있다.

이와같은 論理가 갖는 脆弱点의 抛論은 別個問題가 될것이고 一
且 이것을 그대로 받아 들인다 할때 北韓經濟가 果然 蘇.東歐와
같이 「컨버젠스」傾向을 띄기 위한 條件을 갖추고 있느냐, 아니면
언제 그 스스로가 그와같은 發展段階에 到達할 것이냐 하는 問題
가 当面한 課題가 되는 것이다.

〔別添Ⅱ〕 二重選好體系下 市場利用의 諸段階說의 吟味

여기서, 아직 그것이 完全히 進行되지 아니한 폴란드의 經濟改革의 向方을 보기 위하여 하나의 道標가 될지도 모르는 드류노스키의 二重選好體系에 關한 理論을 吟味하여 보는것이 意味를 가질지도 모른다.

드류노스키의 所謂 「二重選好體系」(Dual Preference System)는 註) 그것이 社會主義에 젖은 東歐(폴란드)의 經濟學者의 見解라 하더라도 우리가 追究하는 共產圈의 經濟改革의 過程에서 市場의 役割이 어떻게 增大될 것인가 하는 點을 생각할 때 注目할만 하다.

그에 依하면,

어떤 經濟든지 두가지 選好 即 市場에서의 買売에 나타나는 個人選好와 國家의 經濟計劃이나 經濟政策으로 表示되는 國家選好가 있다. 그리하여 經濟領域은 國家選好가 全的으로 支配하는 領域(國家支配圈)과 個人選好가 全的으로 支配하는 領域(個人支配圈)의 兩極과 그 中間에 位置한 國家選好와 個人選好가 混在하는 領域(二重支配圈)의 세개 類型으로 나뉜다.

完全한 國家支配圈에 있어서는 消費者選好는 아무런 意味도 갖지 못하고, 財貨는 割當되고 配給되며 따라서 市場은 存在하지 않는다. 여기서 出發하여 市場利用度가 深化되는 過程을 그는 二重支配圈의

註) Jan Drownowski, The Economic Theory of Socialis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Aug. 1961. PP 341-354

3 段階로 다음과같이 說明하고 있다.

第 1 段階 : 財貨는 市場을 通해서 分配되지만 生産은 計劃에 依해서 管理된다.

第 2 段階 : 既存設備에 依한 財貨의 生産은 市場을 通해서 나타나는 消費者選好에 依하여 決定되지만, 消費財의 總量 生産에 投入되는 資源(資本財包含)의 總量 그리고 投資패턴은 모두 計劃에 依해서 統制된다.

第 3 段階 : 消費財生産工場의 現生産高와 投資패턴은 最終生産物에 對한 消費者需要에 立脚해서 定해지되, 生産되는 消費財의 總량과 總投資는 國家圈에 留保된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점은 드류노스키가 말하는 「國家의 選好 或은 支配」라는 것이 결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投票에 依해서 決定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事實 그도指摘했듯이 그의 段階区分은 Arrow의 社会的選択(Social Choice)의 分類와 一見 같은 것 같다. 註)

그러나 Arrow는 政治的決定이 投票에 依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것이라는 점에서 Drewnowski의 國家의 概念과 根本적으로 相異한 것이다. 後者は 政治的決定이 全혀(投票가 아님) 다른 方式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는 또한 그 全혀 다른 政治的決定의 方式이

註) K. J. Arrow, Social Choice and Individual values, John Wiley & Sons, 1951.

非經濟學的問題로서 그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添言하고 있다.

이와같은 그의 添言은 國家支配圈에서 出發한 即 共產圈에서 經濟改革이 아무리 進行되더라도 그 國家가 投票에 依해서 支配되지 않는 限 經濟運營方式의 變化 即 經濟改革이 政治體制를 變化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逆說적으로 表現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포란드가 經濟改革에 있어서 實驗을 先行시키는 것이 바로 이와같은 政治體制가 받을 影響을 事前에 確認하고 施行하려는 교활性인지 아니면, 이와같은 影響이 너무 強烈하여 그 反作用으로 政治가 보다 強硬한 體制로 復歸시키는 것을 念慮하는 經濟政策立案者의 慎重性의 發露인지는 分明치 않다.

그런데 이 市場메카니즘의 利用段階의 区分에 비추어 볼때 東歐各國의 經濟改革은 헝가리·체코以外에는 아직 그 第1段階에로 進入하지 않은 一種의 準備段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코·헝가리는 東歐圈中에서 가장 先進的經濟體質을 가진 나라이다.

第1段階에서 保障하여야 할 消費財의 市場을 통한 分配는 價格메카니즘의 復活 即 市場勢에 따라 伸縮的인 價格이 前提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供給不足品目的 價格騰貴와 消費者嗜好에 맞지 않는 品目的 價格下落을 結果하여, 자칫하면 그들의 經濟的脆弱점이 송두리채 露出될 可能性을 지닌 것이다.

이렇게 볼때 Drownowski의 3段階는 先進的經濟體質(工業供給能力이 需要를 充足시킬수 있는 狀態)이 到達된 後의 推進道標가 되는 것이며 이들 2個國을 除外하고 餘他的 東歐各國은 소聯과

포란드를 包含하여, 第1段階進入에 先行하여 生産面의 基盤을 다지는 準備過程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또한 第1段階 即「財貨의 消費는 市場을 通해서, 生産은 計劃에 의해서」라는 말 가운데 財貨가 「모든」財貨라는 意味라면 그것은 一切의 配給制가 撤廢된다는 것을 意味하는데, 一時에 그와같은 段階에 들어서면 그들의 政治的 組織力의 根源이 흔들리는 結果가 되어 註> 그後の 第2 第3의 段階로의 進行은 다만 時間의 問題가 될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圖 8 > Drewnewski 의 二重選好体系圖

個人支配圈 (個人選好가支配的인領域)	二重支配圈			國家支配圈 (國家選好가支配的인領域)
	(第3段階)	(第2段階)	(第1段階)	
	消費財生産總量 總投資	消費財生産總量 投資패탄 資源總量	全生産	
消費財의 現生産 高 投資패탄	現存設備에 依한 生産	分 配	(市場메카니즘에달음)	

註> 配給制가 그들의 組織力의 根源이라는 것은 그에 依해서 居住의 移動 旅行과 職場의 指定權이 確保될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